

[에버렛 스완슨이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4년 11월 16일
매사추세츠주 브록턴(Brockton)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얼마 전 저는 플리머스(Plymouth)로 가서 유명한 ¹플리머스 바위(Plymouth Rock)와 미국 해안에 처음 온 순례자들의 무덤 옆에 섰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재연되는데, 우리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초기 개척자들과 미국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추수감사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장교들과 함께 훌륭한 추수감사절 만찬에 참석했고, 미국에서 풍성하게 제공한 식탁에서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변은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곳곳이 파괴되고, 빈곤, 헐벗음, 추위, 굶주림,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왔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감사하는 삶"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땅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은 그들의 필요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아들과 전도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 묻는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²한국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in Korea) 이사인 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며칠 전 오지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부 고아와 전도사들에 대한 편애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돈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는 ³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 백화점의 선교부에 따뜻한 속옷, 양말, 장갑 등을 주문하여 크리스마스에 맞춰 모두에게

¹플리머스 바위(Plymouth Rock): 필그림 개척자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현재의 매사추세츠주 동해안)에 상륙했을 때, 최초로 밟았다고 전해지는 바위(https://en.wikipedia.org/wiki/Plymouth_Rock).

²한국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in Korea): 1950년 미국 복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입국한 로버트 라이스(Robert Franklin Rice, 한국명: 나의수, 1921~) 목사가 대구시 남일동 33번지에 설립하였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재래의 구전적 전도 방법을 지양하고 좀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연구 실천하기 위하여 문서 선교를 주요 사업으로 한 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초기에는 '대한 부흥관'이라고 불렀다(https://www.kich.org/bbs/view.html?idxno=3375&sc_category=).

³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 백화점: 세계적인 우편 주문 사업체로 1872~2001년 사이에 운영된 미국의 주요 백화점 체인이었음(https://en.wikipedia.org/wiki/Montgomery_Ward).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체할 수가 없어 300 달러를 선불로 항공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각 후원자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을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할인 가격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많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최소 150 명의 고아와 24 명의 전도사 및 그 가족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소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헌금 봉투를 동봉하여 보내 드립니다. 저는 단지 돈을 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 달러 또는 10 달러를 기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하는,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저는 다음 달 안에 영적인 부흥과 전도 사역을 위해 5 월 1 일 한국으로의 귀국 초청을 수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매일 예배에 최대 50,000 명이 모일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디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복된 뜻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들의 후원자 중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선교 대리인"에게 먼저 편지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아래 주소로 항공 우편으로 보내주시시오(6 센트). 고아에게 보내는 편지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수신인: 로버트 라이스 목사
- 주소: 장로교 선교부(Presbyterian Mission, APO234, Postmaster, San Francisco, California)